■민선 4기 시·도지사 취임 100일

지난 7월 1일 민선4기 임기를 시작한 단체장들이 오는 8일로 취임 100일을 맞는다.

박광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를 비롯해 광주·전남 단체장들은 취임 초기 지역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 美·中 투자유치… 경제 살린다

## 박 광 태 광주시장

### 지역 현안 예산확보에도 심혈

### "지역의원과 협조 정치력 보여야"

'잘사는 1등 광주건설'. 박광태 광주시장이 취임 이후 100일 동안 줄곧 내세운 화두(話頭)다.

내부적으로는 조직안정, 밖으로는 투자유치 등 강력한 '경제 살리기' 정책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최대 역점 시책을 겨냥했다.

100일 동안 두차례나 해외 투자 유치 활동에 나서는가 하면 수시로 정부 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예산확보에 열을 올렸다.

이 같은 경제살리기 행보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장기간 지역 국회의원과 불화 등 정치권과의 불필요한 갈등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취임 보름만에 미주지역 투자유치를 위한 해외출장을 다녀오는 등 경제 시장 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박 시장은 특히 뉴욕 투자유치 설명회에 가던 중 기상악화로 항공편이 결항되자, 미국 5개 주 1천500㎞를 자동차로 횡단한 끝에 투자유치를 성공시키는 열정을 보여줬다.

이어 광저우와 선양, 옌타이 등 중국 대륙 남쪽에서 북쪽까지를 오가며 150억원에 이르는 수출계약 의향서를 체결한 것은 물론 광주시의 산업기반과 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알렸다.

그러나 국비지원 문제 등과 관련해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과 빚어진 고소·고발전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어 지역 거물 정치인이자 단체장으로서 박 시장의 대승적 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 통과로 이제 막 시동을 건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경제살리기 시책의 강한 드라이브를 위해서는 박 시장이 지역 국회의원, 시의회와 화합하고 긴밀히 협조하는 정치력을 보여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 F1 조인… J프로젝트 '탄력'

## 박 준 영 전남지사

### 여수 엑스포유치·섬 관광화 추진

### "의회와 불화 털고 상생 바람직"

박준영 전남지사는 지역의 운명을 바꿀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바쁜 걸음을 이어왔다.

박 지사는 민선 4기 임기 시작과 동시에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비롯한 4대 신도시 개발 사업과 2012여수엑스포 유치, 행복마을 조성 사업, 섬 관광자원화 사업, 광양만권 활성화 등을 당면 현안으로 꼽았다.

취임후 첫 번째로 박 지사는 지난달 11일부터 10일 동안 유럽 5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등 해외 순방 활동을 통해 미화 3억달러 규모의 투자협약과 벨기에 바스프(BASF)사 등과의 투자 협약을 이끌어 냈다.

현안 사업추진에 필수불가결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을 위해 중앙 부처를 돌며 적극적인 예산확보 활동을 벌인 결과 내년도 지역현안 사업비를 전년도보다 10% 증액된 4조7천718억원을 확보했다.

또 지난 2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F1(포뮬러 1)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 조인식을 가짐으로써 J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의욕적인 출발에도 불구하고 박 지사가 헤쳐나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J프로젝트 등 4대 신도시 개발사업을 국비와 지방비에 민자유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 민간 자본유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투자자 확보가 사업의 성패의 관건이다.

이와 함께 조직개편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회와의 관계 정립 및 직원들과의 원활한 '소통'도 박 지사가 민선 4기 성공적인 도정을 위해 크게 신경써야 할 부분이다.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 DJ "정계개편 역할론 유감"

## 이례적 공식 논평… 정치 불개입 원칙 재확인

김대중(DJ) 전 대통령 측은 3일 이례적으로 공식 논평을 내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DJ 정계개편 역할론'에 유감을 표시하고, 정치 불개입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 전 대통령측 최경환 비서관은 논평에서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4년동안 일관되게 정치에 개입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일절 정치개입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김 전대통령과 누구와의 연대', '여권 통합에서 김 전 대통령의 역할론' 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강연 등을 통해 '정치 불개입' 의지를 수차례 표명한 바 있으나 공식논평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기는 사실상 처음으로, 최근 정치권의 정계개편 논의 과정에서 회자되는 'DJ 역할론'에 쐐기를 박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최 비서관은 "11월 개최될 예정인 '김대중 도서관 후원의 밤' 행사가 범여권 결집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후원의 밤 행사는 연세대학교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정치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정치권 인사들로 자문위원단을 구성한다는 보도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김대중 도서관에서 미국 뉴스전문채널인 CNN 방송과 가진 대담내용도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한반도정세, 6자회담 재개방안, 북한 위폐문제 해결방안 등 현실정치와 거리를 둔 외교.안보분야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3당 대표 "잘 해 봅시다"** 3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제4338주년 개천절 경축식에 참석한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외교안보팀 개편 어떻게?

# '송민순 카드' 활용 여부에 달렸다

## 후임 외교장관 유명환·이규형 등 하마평

## 국방·국정원장 교체 여부도 초미 관심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3일 사실상 차기 사무총장으로 내정됨에 따라 청와대에서는 후임 외교장관 인선을 비롯한 정부 외교안보팀 개편을 놓고 물밑 조율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변이 없는 한 반 장관은 오는 9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식 투표를 거쳐 유엔총회에서 차기 유엔 사무총장으로 인준을 받는 절차를 밟게된다.

◇**후임 외교장관 하마평**=외교부 차관급 이상의 고위 외교관 상당수가 장관 물망에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유명환 제1차관, 이규형 제2차관과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이 유력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요국 대사로는 이태식 주미대사, 김하중 주중대사, 최영진 주 유엔대사, 김재섭 주러시아대사 등도 당장이라도 장관수행이 가능한 후보군으로 분류된다.

외교부내에서는 '조직의 안정성' 측면에서 외무고시 7회인 유명환 차관의 발탁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유 차관은 반 장관과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고 참여정부 임기후반의 외교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한 평가를 받고 있는 편이다.

이태식 주미대사도 하마평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지만 대사직을 맡은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이 변수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노 대통령의 신뢰가 두터운 것으로 알려진 송민순 안보실장의 기용 여부도 빼놓을 수없는 관전포인트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송 실장이 "장관감으로 나무랄 데가 없다"는 평가가 많지만, 북핵 해법 등 산적한 외교현안을 풀어내는 현 시점의 안보실장 자리에 "송 실장만한 사람이 없다"는 평가가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 보인다.

◇**외교안보팀 개편 확대되나**=송 실장의 거취는 외교장관 자리뿐 아니라 외교안보팀 개편의 폭을 좌우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 통일, 국방장관, 국정원장과 더불어 외교안보팀을 구성하는 핵심멤버이고, 노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안보정책조정회의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외교안보 방향을 좌우하는 자리라는 점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노 대통령이 외교안보팀내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송 실장을 어떤 카드로 활용하느냐에 따라 외교안보팀 개편의 폭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장관, 국정원장 교체 여부**=일단 지난 1월부터 재임한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계속 유임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노 대통령이 최근 "이종석 장관은 북한과 접촉할 수 있는 가장 신뢰할만한 통로"라고 말한 바도 있고, 임기 마지막까지 이 장관에게 남북회담을 비롯해 대북 업무를 맡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했던 탓이다.

윤광웅 국방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기회에 교체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거취도 관심이다. /연합뉴스

##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한, 선거법 개정 반대

한나라당은 3일 열린우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 방식으로 도입키로 확정한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 논란과 관련,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전제로 한 선거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선거법이 특정 정당의 집권야욕에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안된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돈 안드는 선거'에 역행하고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제도로, 정경유착을 심화시키고 정치개혁을 후퇴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 김봉호 전 국회의원 해남·진도 무소속 출마

김봉호(74) 전 국회의원이 오는 25일 치러지는 해남·진도 국회의원 보궐선거 무소속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3일 해남군 해남읍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민의 성원과 답보되어 있는 각종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앞으로 있을 정계개편의 중심에서 역할을 최대화하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해남=박정옥기자 jopark@